

<2024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청년)> 선정 심의총평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청년)>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선정하는데 있어, 총 12명의 역량있는 작가들이 추천을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기에, 심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천미술을 대표하는 청년 작가가 처음 선정되는 것으로 그 상징성이 높고, 이후에 이어질 전시 프로그램에도 이번의 기준이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심의위원간에 다각적이고도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의 기준이었던 탁월한 창작성과,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 작가로서의 지속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기준, 특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인천’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데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성과의 연계를 작품성 및 발전 가능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작가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작의 언어로서 드러나는 것인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여 1차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가들을 5명으로 좁힌 뒤, 재차 심의위원간 의견 제시 및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2명으로 후보군을 줄여나갔으며, 최종적으로 엄지희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엄지희 작가는 예술적 독창성, 자기의 고유한 조형 언어, 형식과 미학적 노선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및 글로벌 현대미술의 흐름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에도 발전 및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인천미술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지역적 긴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인천아트플랫폼의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 전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기에, 논의가 길게 이어졌고,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밖에 뽑을 수 없었다는 데에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심의 대상 작가들 모두에게도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각자의 작품 세계가 더욱 확장되어 풍성한 예술적 활동의 행보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 전시가 인천이라는 독특한 지역성과 보편적 창작 성과를 창의적으로 결합해가는 의미있는 전시로 자리매김하여 인천의 다양한 예술인이 보다 풍부하고

흥미롭게 발전하고 지역의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 심상용(심의위원장, 서울대 교수)
- 권순학(인천대 교수)
- 문혜진(미술비평가)
- 박가희(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 이수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별첨] <2024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청년)> 위원회 명단

○ 전시운영위원

- 이태호(운영위원장, 전)경희대 교수, 예술가 및 비평가)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최병국(예술가, 전)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최태만(국민대 교수, 미술비평가)
- 홍선웅(예술가, 인천문화재단 이사)

○ 추천위원

- 김순임(예술가)
- 김흥기(미술평론가)
- 정 현(인하대 교수, 미술비평가)
- 채은영(임시공간 디렉터)
- 최윤정(문화비축기지 큐레이터)
- 이영리(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팀장)
- 이은진(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 심의위원

- 심상용(심의위원장, 서울대 교수)
- 권순학(인천대 교수)
- 문혜진(미술비평가)
- 박가희(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 이수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